

韓國의 古文書의 花押에 관한 研究

趙 復 衍*

- | | |
|------------|------------------|
| I. 머리말 | 라. 一字體 |
| II. 花押의 諸體 | 마. 別用體 |
| 가. 草名體 | 바. 明朝體 |
| 나. 二合體 | III. 花押과 印章과의 關係 |
| 다. 三合體 | IV. 맺음말 |

I. 머리말

花押을 印章의 種類에서 논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花押印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花押의 성격을 본다면 印章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응당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당초 花押은 그 名字를 草簡한 데서부터 비롯되어 왔는데, 대개 官文書인 詔勅을 天子가 畫譜(諸侯가 올린 奏에 天子가 御覽하고)하던 制度에서 비롯된 遺物이다. 그 由來는 六朝에 鳳書體가 있었는데 이것을 花畫 또는 押字라고 불렀으며, 唐代에 들어와서 署名을 할 경우 五朵雲(다섯개의 꽃떨기 같은 구름)이 늘어진 것처럼 草書體로 쓴 自署에서부터 시초가 되어 宋代를 거쳐서 元代에 이르러서는 花押印이 성행되었다. 花押印이라 함은 타인이 모방할 수 없도록 성명을 草書體로 쓴 花押을 印章에 새긴(刻) 것으로서 宋代의 花押印은 一字印이 보통이었으나, 下部에 花押을 새긴 가늘고 기다란 印章이 있었으니 이것을 元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花押의 「押」은 署名을 의미하며, 따라서 花押을 꽃과 같은 아름다운 草書體로 한 署名을 뜻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까닭으로 花押을 草名·押字·花書·草字라고도 한다. 이 우리나라인 日本의 경우를 살펴보면 花押을 書判(かきはん)이라 하며, 中國의 花押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으로서 奈良時代의 律令制度가 무너져 官印의 위력이 감퇴한 平安朝後期부터는 公文書에 한정하지 않고 私文書에도 폭넓게 성행하게 되었고, 中世期에 있어서는 단지 「判」이라 함은 手決 또는 手押을 의미하였으며 즉 花押하는 것으로서 印形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花押은 實名을 自署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文書에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圖書室長

는 花押만으로서도 괜찮았는데 鎌倉時代부터 實名을 自署하고 그 밑에 花押을 가필하게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花押은 署名의 성격으로부터 이탈해서 점차로 여러가지 형식이 생기게 되었고 일종의 사인(sign)이라 해서 성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는 花押은 새로운 形態로 나타났으며, 다음에 열거하는 草名體・二合體・一字體・別用體 그리고 明朝體 등이 있다.⁽¹⁾

그런데 韓國에서는 花押을 보통 押 또는 手決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나라인 中國이나 日本에서 花押이라고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이 유독 「押」이니「手決」이라고 명칭을 달리하여 권위의식을 세우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좀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中國에서부터 비롯된 말로써 「通俗編：文學；花押」에 「崔元伯尤善行押之書 特盡精巧 而不見遺迹是也. 或以其體之變化 謂之花字 北齊後主紀 開府千類 儀同無數 領軍一時二十 連判文書 各作花字 不具姓名 莫知其誰是也. 其後合二文言之遂曰花押」⁽²⁾라는 내용을 보아도 花押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이 花押은 自署를 뜻하는 手決이고, 賤民과 奴婢에 한하여는 花押代身 左寸⁽³⁾을 하였으며, 兩班・中人들의 부인은 반드시 墨印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花押의 본래 취지는 自筆과 他筆을 구별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따라서 거기에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도 수반하고 있다.

古文書는 外形으로 볼 때 文書의 書式, 記錄된 文字 그리고 花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자가 이 論文에서 연구코자 하는 것은 이중 韓國의 古文書에 있어서의 花押에 대하여 體系的으로 分類・考察하고, 또 花押이 立證文書를 實證하는 데는 오늘날의 指紋과 같이 正確性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高麗・近世朝鮮에 이르러서는 이 花押이 印章보다 훨씬 盛行하여 왔음을 제시하여 두는 것이 이 研究의 目的이다.

이 花押의 起源에 대하여 여러가지 學說이 분분하지만 中國의 경우는 唐나라의 韋陟⁽⁴⁾이 右筆의 文書에 기입한 陟字를 自署한 것이 五朶雲⁽⁵⁾과 같다 하여 이것을 花書라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花押이 성행하였던 때는 唐代이었으나, 「通俗編：文學；花押」에 의하면 「按古言署名 卽今押也, 其謂之押者 見自魏書」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唐나라 이전인 魏晉南北朝를 통해서 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文化圈에서 영향을 받은 東洋三國中 한나라인 日本은 天皇이 詔勅을 御畫한 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아지며 奈良・平安時代의 自署한 記錄類를 볼 수가 있다.⁽⁶⁾

(1) 吉村茂樹, 『古文書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8), pp. 92-98.

(2) 『中文大辭典』第28册, (臺北, 中國文化研究所, 1967), p. 31.

(3) 白麟, “古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問題” 國會圖書館報 第4號, 1964, pp. 101-110.

(4) 藏勵齋(編), 『中國人名大辭典』(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58), p. 723.

(5) 諸橋轍次, 『大漢和辭典』第1卷, (東京, 1960), p. 462.

(6) 伊本壽一, 『古文書學』(東京, 慶應義塾大學通信教育部, 1958), p. 41.

이상 中國과 日本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韓國의 花押制度는, 한국이 中國文化의 영향을 가장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아, 日本과 거의 비슷한 時期인 三國時代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古文書研究가 東洋三國中 가장 낙후되고 있으며 아직도 생소한 學問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研究·開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다만 朝鮮時代에서 李太祖의 花押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實物들을 蒐集·考察하는데에 그칠 뿐이다.

官文書는 반드시 文書를 작성한 年月日과 그 文書를 確證하는 官印이 捺印되게 마련이나 一般私人은 韓末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私印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自然人 사이에서 이루어진 契約 또는 賣買文書는 財主·證人·執筆者 등이 자기의 姓名을 기재하고 花押을 하였으며 그 밖에도 所志나 準戶口單子는 官吏가 文書를 접수하고 처리하였다는 증거로서 官吏의 官職 밑에 花押을 하였다. 그런데 朝鮮社會에서는 身分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文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認證을 확인하는 표시로서의 花押하는 방법도 兩班階層과 奴隸階層間에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姓을 가지고 있는 兩班과 中人들은 실질적으로 花押이 가능하였으나 賤民과 奴婢에게는 花押이 不可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奴婢들은 花押 대신 左寸[手寸]이라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연코자 하는 것은 古文書上에 兩班 또는 中人들의 婦人은 어떻게 財產上의 권리행사와 의사표시를 하여왔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도 階級意識은 여전히 작용하여 賤民과 下人の 妻는 左寸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兩班과 中人の 婦人은 姓만 있고 이름이 없었던 탓으로 花押대신 「○○○妻 本貫姓氏(例: 豐壤趙氏)」라는 四角印章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印泥는 붉은 색이 아니고 반드시 검은 색이었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상과 같이 성행하였던 花押制度는 韓日合邦으로 階級の 타파, 人權의 평등으로 文書上의 證標를 일부 識者를 제외하고서는 印章으로 統一을 하여 왔다. 그러나 文書上에 온갖 僞造와 조작 등 非行이 수없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改善하는 防止策의 하나로서 印章代身 花押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필자는 주장하면서 이 論文의 研究目的으로 삼는다.

Ⅱ. 花押의 諸體

花押은 賣買文書나 契約書 등의 私文書上에 財主·證人·執筆者들이 자기의 姓名을 기재하고 姓名 밑에 자기 자신이 花書로 自署하는 경우와 準戶口單子에서 文書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官衙의 公職者들이 自署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花押이라고 한다. 다음 項에서 거론하겠지만 左寸은 無筆者에게 대신 記入하여 줄 수가 있으나 이 花押은 반드시 本人이 記入하여야 하고 學識이 낮아 花書가 서투를지언정 符號이던 또는 草名이던 간에 花書를 반드시 하여야 하기 때문에 文盲은 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左寸보다는 차원이 높으므로 시

대적으로도 뒤늦게 발생하였음이 틀림없다. 中國에서는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나라 때 성행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빠르면 三國時代의 初期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으로 추측되고 高麗朝와 朝鮮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花押은 자기 姓名 三字를 가지고 변형시킨 경우가 가장 代表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草書하는 경우 이 花押을 草名體, 이름 二字를 가지고 일부분씩 떼어서 하나의 글자를 組合하는 경우 二合體, 姓名 三字를 조합하여 만들 경우 三合體,⁽⁷⁾ 이름중에서 어느 한 글자를 택하였을 경우 一字體, 自己姓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자나 符號를 택하였을 경우 別用體, 그리고 明朝體 등 6개의 類型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여 보겠다.

가. 草名體

本名の 漢字를 草書體로 흘려 쓴 것을 「草名」이라 하며, 이것은 楷書로 署名한 本名에 대한 말이다. 이 草名은 시대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수효로 보아도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花押의 根本을 이루고 있다.

이제 實例를 들어 고찰하여 보면, 金集(1574~1656)의 花押을 들 수가 있는데, 金集의 字는 士剛이요 號는 慎獨齋이고, 官職은 判中樞府事에까지 오른 朝鮮의 대표적인 禮學者이다. 그의 花押은 圖 1의 (左)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이 한 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集」字를 草書한 것으로서 劃을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順序가 整然하게 그었는데 長短을 調和시킨 것이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위의 花押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때 圖 1의 (右)는 같은 體의 花押으로서 退溪 李滉(1501~1570)의 花押인데, 이 화압은 「滉」字의 草書이고 그 밑에 형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에 있는 花押에 걸드려 보기좋도록 그려 놓은 紋樣인듯 싶다. 이런 점에서 좌측에 있는 金集의 화압과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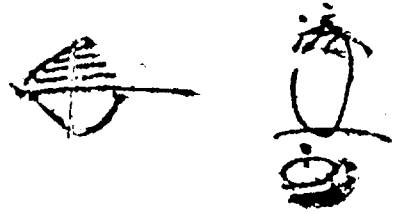


圖 1. 金集 花押(左) 李滉 花押(右)

둘째로 牛溪 成渾(1535~1598)을 들 수 있는데 그는 栗谷과 四端七情, 理氣의 說을 論難하여 學界에 이채를 나타내었고 性理學에 있어서 畿湖學派의 理論的 根據를 만들었는데, 그의 花押은 외자인 「渾」字를 草書하였는데, 圖 2에서 볼 수 있듯이 渾字가 「彳」偏에 「軍」字를 合하여 構成되었으므로 쉽게 풀어서 알 수는 있으나 이 草書는 좌측에 있는 偏「彳」를 上部에 올려 놓고 그 밑에 「軍」을 놓았음을 감지할 수 있으나 명확한 분석은 속단키가 어렵다. 그러나 이 花押은 어딘지 모르게 웅장한 느낌을 주고 남성다운 멋을 풍기고 있다.



圖 2. 成渾 花押 셋째로 西溪 朴世堂(1629~1703)을 들 수 있는데 그의 花押은 圖 3에서

(7) 註 (1)에서 伊本壽一은 花押을 草名體, 二合體, 一字體, 別用體, 明朝體 등 5體로 區分하여 說明하고 있으나, 筆者는 우리나라의 花押을 調査한 結果 姓名三字를 組合하여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三合體라 名命하였다.

볼 수 있듯이 이름 二字中에서 마지막 글자인 「堂」字를 草書한 것으로서 누가 보아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깨끗하고, 흘려서 쓴 필적이 명필임에는 틀림없다.



■ 3. 朴世堂 花押

마지막 洪象漢(1701~1769)을 들 수 있는데 그의 花押을 보면 圖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인 「象漢」二字중에서 앞글자인 「象」字를 택해서 草書하였는데 앞



■ 4. 洪象漢 花押

에 나온 4자의 경우와는 달리 花押自體가 월등하게 크고 劃도 굵고 길어서 기상이 늙늙하게 보인다. 그러나 劃을 간략하게 줄였기 때문에 언뜻보아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나. 二合體

이상은 草名體에 대하여 각각 實例를 들어가면서 검토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二合體의 花押을 고찰코자 한다. 이 화압은 草名體와는 달리 새로운 形式의 花押으로서 本名의 二字中 윗글자의 偏에다가 아랫글자의 旁을 左右로 結合시키거나 혹은 上下로 結合시켜 二字를 組合하여 전혀 別個의 形이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다.

이 花押은 우선 서울大學校圖書館 所藏 文書中 光緒 16년(1890) 10월 30일에 朝鮮國王(高宗)이 淸 北洋通商大臣衙門에 보내는 咨文에서

「朝鮮國王爲咨會事 照得光緒十五年捌月間 由弊邦派送駐津督理商務並派從事官金商惠書記官邊錫運前往接任 並咨明貴大臣在案 茲金商惠因病調還 所遣從事官一缺着邊錫運陞差照前承辦以資熟手 相應備文咨會貴大臣 查照施行 須至咨者」⁽⁸⁾라는 咨文으로서 그 내용은 「商務를 督理하기 위하여 淸國과의 國境地點인 津頭에 從事官 金商惠와 書記官 邊錫運을 파견하였는데 從事官 金商惠이 병으로 인하여 돌아오자 書記官 邊錫運을 昇級시켜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본 文書 말미의 咨라는 글자 밑에 高宗의 花押이 있다. 高宗은 全州 李氏의 行列에 따라 初名은 「載晃」이었고 王位에 오른 뒤에는 「熈」字를 이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花押은 圖 5에서 볼 수 있듯이 「晃」字의 「光」에다가 등극한 후의 本名인 「熈」字의 下部에 해당하는 「火」字를 上下로 결합시켜서 만든 二合體 花押이다. 살펴 보면 간결하면서도 複合的인 內容을 지니고 있으며 우아하게 보인다.



■ 5. 高宗 (李載晃) 花押

둘째로는 節齋 金宗瑞(1390~1453)의 花押을 들 수가 있다. 世宗朝 六 鎭開拓時에 本家의 자식에게 보낸 安否書札이 있는데 이 書札의 말미에 「初 (李載晃) 花押 九日父(花押)」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花押은 圖 6에서 볼 수 있듯이 花押自體가 타에 비하여 훨씬 크면서 武風을 연상케 하는 우람찬 기상을 보이고 있다. 花押을 분석하여 보면

(8) 朝鮮史編修會(編), 『朝鮮史』第6編 4卷, (京城, 朝鮮總督府, 1938), pp. 946-947.



自己 이름인 「宗」字와 「瑞」字를 組合하였는데 「宗」字는 上部에 놓고 「瑞」字는 下部에 붙여서 마치 一字인 것 처럼 보아질 정도로 密着되어 있으나 實은 二字를 結合시켰음을 곧 알아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二字를 上下로 결합하였으나 高宗의 花押처럼 二字를 垂直으로 밀착시키지 않고 엇비스듬하게 組合한 것이라 하겠다.

세째로 成宗때의 估畢齋 金宗直(1431~1492)의 花押을 고찰하겠다.

■ 6. 金宗瑞 花押 圖 7의 (左)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름인 「宗」字와 「直」字를 組合하여서 一字처럼 만들었는데 이 花押 역시 「宗」字는 작게 써서 위에 놓고 「直」字는 크게 써서 아래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보기에 잘 조화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감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글자에 씩씩한 기상을 찾아볼 수 없다.



■ 7. 金宗直 花押(左), 金在魯 花押(右)

같은 體의 花押으로서 조금 다른 것을 소개하자면 圖 7의 (右)는 朝鮮 英祖朝의 淸沙 金在魯(1682~1759)의 花押인데 이 화압은 이름인 「在」字를 위에 놓고 그 밑에 「魯」字를 密着하여 構成하였는데 마치 一字처럼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이고, 명필인 데다가 간결하면서도 모양까지 맵시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肅宗 때의 藥泉 南九萬(1629~1711)의 花押을 검토하여 보겠다. 이 화압은



圖 8에서 볼 수 있듯이 本人의 姓名中에서 이름인 「九」字와 「萬」字를 組合해서 만든 것으로서, 위에서 두 예를 제시한 경우는 이름중에서 윗 글자는 上部에 아랫글자는 下部에 密着시켜서 마치 하나의 글자처럼 花押

■ 8. 南九萬 花押 이 만들어졌으나,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이름중에서 아랫글자인 「萬」字를 草書로 上部에 놓고 윗글자인 「九」字를 책받침처럼 下部에 密着시켜서 마치 한자 같이 花押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화압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보기에 몹시 아름답고 그려진 품이 명필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서 花押史上 代表的인 作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다. 三合體

이상은 草名體와 二合體의 모든 花押中에서 서로가 다르고 特色이 있는 體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고찰하였거니와 본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姓名이 姓 1字와 名 2字 등 合 3字로 構成되고 있는데 이 3字를 모두 사용하거나, 偏과 旁의 일부분씩을 떼어서 組合 혹은 變形시켜서 花押을 만든 경우들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들 類에 속하는 花押은 數에 있어서 지극히 적으나, 3·4種의 경우를 찾아내었으니 實例를 들어가면서 논술코자 한다.

우선 서울大學校圖書館 古文書中 萬曆 31년(1603) 7월 4일 吏曹에서 從仕郎 柳時輔를 通仕郎으로 陞任한다는 教旨를 받드는 文書인데, 本文書 말미에 判書·參判 그리고 參議 臣「朴」이라는 姓字 밑에 花押이 있다. 이 花押의 주인은 宣祖 36년에 吏曹參議를 역임한 바 있는 朴曾賢이고, 그의 花押은 圖 9에서 볼 수 있듯이 姓名 3字를 組合한 경우로서 上壇에 「=」은 朴字의 「卜」을 뜻하고 中間의 「卍」은 曾字의 「卍」을 뜻하며 下壇의 「ㄷ」은 賢字를 뜻하는 것으로서 姓名 3字를 偏과 旁을 분리하여 妙하게 組合해서 만든 花押으로서 지금껏 다루어온 화압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기에 좋은 인상을 준다.



圖 9. 朴曾賢 花押

둘째로 역시 서울大學校圖書館 所藏文書中 萬曆 37년(1609) 7월 22일 李昌胄前明文에서 夫人 명의로 된 余美伏在貳拾卜과 兪字參拾肆卜을 아울러서 價折 正木 貳拾參匹을 받고 放賣한다는 賣買契約文書인데, 文書에 대하여 信憑性的 證據로 田主 禹光績, 證人 具榮門·李恕男 등이 連名하고 花押을 하였다. 圖 10에서 볼 수 있듯이 田主 禹光績은 姓名 3字를



圖 10. 禹光績 花押 상하게 느껴진다.

가지고서 花押을 만들었는데 姓인 「禹」字의 上壇 「ノ」과 이름에서 윗 글자인 「光」字에 아랫 글자인 「績」字의 偏「糸」를 제외하고 旁인 「責」을 「光」字 밑에 바짝 붙여서 3字를 組合하여 1字로 만든 花押이다. 살펴보면 약간 복잡할 것 같으면서도 3字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보기에 매우 고

세제로는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所藏文書中 乾隆 32년(1767) 4월 27일 李召史宅奴 時同前明文에서 楊州東面 忘憂里伏在 番 貳斗落只와 伍斗落只를 價折錢文 肆百貳拾五兩을 捧上하고 土地를 放賣한다는 文書인데, 本文書末尾에 財主 綾昌○宅奴 秀寸, 證人 玄時綱·邊東信·崔天己, 執筆者 玄弼茂 등이 각각 連名하고 그 밑에 花押을 하였으나 財主側의 奴 秀寸은 신분이 낮은 노비인 까닭으로 어쩔 수 없이 左寸을 하였다. 本文書에서 證人 玄時綱의 花押을 검토코자 한다. 圖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花押은 「玄」字의 上壇 「丨」을 取하고 이름 중에서 아랫 글자인 「綱」字에서 「糸」을 除外하고 旁인 「岡」을 취하되 겉의 外郭인 「冂」에 윗글자인 「時」字를 組合해서 만든 三合體 花押이다. 이 花押은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나름대로 품위가 있어 보이는 花押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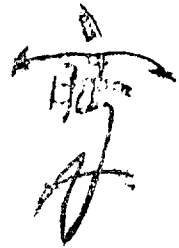


圖 11. 玄時綱 花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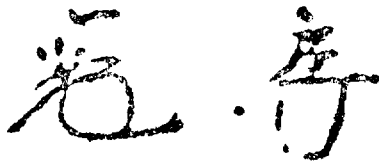


圖 12. 金光孚 花押(左), 陳善得 花押(右) 「孚」字의 「子」에서 「了」만을 取하여 右側에다 組合시

끝으로 圖 12의 (左)는 金光孚의 花押이고 (右)는 陳善得의 花押이다. 이 두 花押은 모두 三合體 花押으로서 金의 花押은 姓인 「金」字에서 마지막 劃인 「一」을 取하고 다음으로 이름인 「光」字를 左側에 配置하고

켜서 마침내 「ㄹ」라는 花押을 이루었고, 陳의 花押은 이름인 「善」字의 點인 「·」을 取하고 다음으로 姓字의 偏인 「卩」을 點 바로 밑에 부착시켜서 끝으로 이름의 끝 글자인 「得」字에서 「寸」을 組合하여서 구성시켰다. 이상의 예로 보아 金의 花押은 劃을 左右로 조합시킨 데 반하여 陳의 花押은 上下로 조합시킨 데서 차이가 난다.

라. 一字體

이것은 우리나라의 花押史上 제일 먼저 성행하였던 花押으로서 自己의 姓名 中에서 一字를 홀려써서 만든 花押이다. 二合體에 대해서 二別體라고도 한다. 이때에는 姓名中 姓字보다는 名字 二字 中에서 一字를 採擇한 例가 많다.

이제 實例를 들어 檢討하여 보면, 우선 文化財管理局 所藏文書中 李太祖(李成桂)가 第一子인 鎮安君 芳雨에게 父祖傳來의 田畝一部를 分賜하는 教旨인데, 이 文書는 吏讀를 사용하였고 용어도 現代文體가 아니며 文字의 不明處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解釋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 文書에 李成桂의 花押이 있는데, 圖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花押은 李太祖가 初名은 成桂인데, 朝鮮王朝의 초대 王으로 등극하면서 名은 「ㄷ」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ㄷ字를 뒤엎어서 만든 一字體 花押이다. 이 화압은 매우 간편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國王으로서 사용 頻度가 높았던 관
 圖 13. 李太祖(李成桂) 花押

둘째로 肅宗때의 明谷 崔錫鼎(1646~1715)의 花押을 고찰하여 보겠다. 圖 1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花押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부분 自己의 姓名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만든 花押이 아니고, 本人의 號인 「存窩」에서 「存」字는 제외하고 「窩」字만을 택하여 변형시킨 花押이다. 비록 劃數가 줄어서 간략하게 보이지만 「窩」字

圖 14. 崔錫鼎 花押 로서의 구실을 다하면서 字體로서의 균형이 잡힌 草書의 花押이다.

마지막으로는 正祖때에 承旨를 지낸 바 있는 宋煥喆의 花押을 들 수가 있다. 이 花押은 圖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중 아랫글자인 「喆」字에서 반쪽에 해당하는 「吉」字만을 뽑아서 花押에 대신하였다. 이것은 姓名 3字中 喆字를 택해서 사용하여도 좋았을 것이나 좀더 간편하고 외관상 보기에 더 좋게 하기 위하여 「吉」字를 만들어서 花押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분의 머리가 매우 明哲하였다는 점 宋煥喆 花押이 엿보인다.

마. 別用體

이 體는 자기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는 別個의 文字 또는 事物을 圖案化한 花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姓名中 물체를 표시하는 一字를 택하여 그 形象을 그려서 사용한 例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日本에서는 室町末期부터 戰國時代에 걸쳐서 武家의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며, 그네들은 姓名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文字나 事物을 圖案化해서 사용한 점이 위의 體와 다르다.

實例를 들어 고찰하여 보면, 우선 英祖時에 徐得駿의 花押이 있다. 圖 16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이름은 「得」字와 「駿」字이다. 이 二字中에서 아랫글자인 「駿」字는 「준마 준」으로서 다시 말해서 잘 달리는 좋은 말을 뜻하는 것으로서 馬(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徐得駿은 自己의 花押은 말(馬)을 그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花押史上 別用體의 특색이다.



圖 16. 徐得駿 花押

둘째로는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所藏文書中 「雍正 11년(1733) 12월 25일 幼學 朴文類前明文」인데, 永平胎峰伏在 田二日半耕十六卜八束을 價折錢文十伍兩에 放賣하면서 賣買契約文書를 작성하고 文書末尾에 田主 司果 李鳳章과 證人 韓必遠·宋廷鎭이 각각 花押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證人 2명의 花押은 제외하고 田主 李鳳章의 花押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면 姓名 三字中 이름에서 「鳳」字를 택하여 만든 花押인데, 圖 17에서 볼 수 있듯이 이 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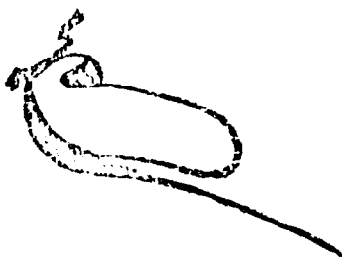


圖 17. 李鳳章花押

押은 鳳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연성이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려서 한폭의 名畫처럼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繪畫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었던 분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花押은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所藏文書中 「大清 光緒 20년(1894)3月 日 李奴大宅(李奴의 큰집)前明文」에서 楊州接洞面 全洞伏在 田三日耕結 八束과 新植兒栗木 三百五十株를 價折錢文 五仟三百兩을 받고 放賣하는 賣買文書로서, 本文書末尾에 田主 宋南山, 證人 柳澤鍊이 連名하였는데 田主 宋南山은 自己 姓名 밑에 左寸을 하고 證人 柳澤鍊은 花押을 하였다. 그런데 이 花押은 圖 18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고찰해온 花押과는 달리 文字와 形象을 조합한 別用體라는 점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검토하여 보면 本人의 이름 二字中에서 윗글자인 「澤」字를 取하고 이 澤字의 「氵」偏을 「一」字 처럼 上壇에 긋고 그 밑에는 물(水)이 고여 있는 연못처럼 모양을 그려 넣었다. 다시 말해서 이 花押은 글자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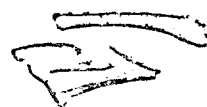


圖 18. 柳澤鍊 花押

部와 記號를 결합시켜서 花書를 만들었다는 데서 異彩를 띠고 있다.

바. 明朝體

이 花押은 明의 太祖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明朝體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體의 特色은 「地平天成」의 의미에서 天地에 각각 「一」字를 그려놓으면 「二」가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가지 形을 考案하여 넣는 것으로서 대개의 경우는 복잡성을 피하여 간단한 것이 보통이다.

이제 實例를 들어 검토하여 보면 우선 英祖 때에 刑曹判書를 지낸 姜益河의 花押이 있다. 圖 19에서 볼 수 있듯이 이 花押은 天地에 각각 「一」을 그어 上下를 정하여 놓고 本



■ 19. 姜益河 押花

人的 이름인 「益河」에서 「益」字를 取하되 天地인 「二」이 구성되어 있으니 그 內部에 「ㄱ」을 그려넣으므로 「益」字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天地인 上下를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內部에 圖案을 하였으므로 철저한 明朝體의 花押이다.

둘째로 역시 英祖 때의 朴鳳五의 花押을 고찰하고자 한다. 圖 20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이름인 「鳳五」에서 아랫글자인 「五」字를 取擇하고 다음으로 上下에 天地를 그려 놓고 마치 돛을 단 배 모양으로 「五」形象을 구성하여 花押을 완성시켰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속에 들어 있는 의미가 깊다.



■ 20. 朴鳳五 花押

마지막으로 역시 英祖 때의 사람으로 洪鑑輔의 花押을 검토하여 보겠다. 圖 2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이름인 「鑑輔」에서 윗글자인 「鑑」字를 택하고 이 글자를 다시 偏인 「金」을 제외한 나머지 「監」字를 明朝體로 구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선 上下에 「二」처럼



■ 21. 洪鑑輔 花押

天地를 정하고 다음에 「監」을 드디어 완성시키므로서 花押이 형성되었다. 이상으로 첫째의 경우는 완전히 文字만으로 明朝體의 花押을 이루었고 둘째의 花押과 셋째의 花押은 天地를 우선 定立하고 다음에 돛단 배 모양의 形象 등을 그려넣으므로서 明朝體의 花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相異點을 보이고 있다.

Ⅲ. 花押과 印章과의 關係

제일 먼저 南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에서 原始農村이 神殿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그 뒤 점차로 마을이 발달하고 다시 도시로 발전되었다. 이들 도시는 神殿의 神官인 僧王이나 군사지도자인 王에 의하여 지배되고 國家의 體制가 정돈된 都市國家로 成立되어져 갔다. 당시 이런 국가를 일으킨 슈메루(Sumer)인은 이미 楔形文字를 만들어서 常用하여 왔다. 그래서 기원전 2500년부터 灌溉農業을 일으키고, 또한 製陶·鑄銅의 技術이 발달해서 人類文明의 大道가 구축될 무렵 印章도 출현하였다.⁽⁹⁾

그리고 東洋三國中에서 文化가 제일 먼저 발달하였던 것은 中國인데, 春秋戰國時代는 中國의 初期文明으로부터 古典古代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혁기로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현저히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中國의 印章史도 사실상 戰國時代에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

(9) 吉木文平, 『印章綜說』(東京, 技報堂, 1971), p. 49.

다. 東周에서는 官僚制度가 확립되어 官吏의 임명에는 權力授受의 證標로서 璽印을 사용하였고, 公文書에는 官印을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新興階層의 勃興과 함께 交易經濟가 발달하여 필연적으로 貨幣의 유통을 촉진시켰으며 이런 현상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證信과 所有權表示의 목적으로 私印의 사용이 성행하였다.⁽¹⁰⁾

그러므로 東洋에서는 印章使用을 殷周에서 시작하여 秦漢代에 와서 기틀이 잡힌 완벽한 印信이 만들어져서 王室에는 璽寶, 官衙에는 官印 그리고 私人에게는 私印의 休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되어 온 印章이 花押과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는지 살펴볼까 한다. 花押은 序言에서 언급하였듯이 魏晉代에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信憑性은 적으며, 그후 唐의 韋陟이 五雲體의 花押을 한 데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었고, 宋代에는 宋押, 元代에는 元押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韓末에 이르기까지 매우 성행하여 왔다. 그런 까닭으로 花押은 印章에 비교하여 볼 때 비록 그 歷史는 뒤지지만 印章史上 가장 현란하였던 漢代의 印章도 後漢에 들어와서 종이의 발명이 계기가 되어 簡牘은 점차로 몰락하였고, 여기에 따른 封泥의 쇠퇴는 印章凋落의 원인이 된 것 같이 보인다. 한편 3세기 벽두부터 6세기말에 걸친 魏晉南北朝時代는 정치적으로도 혼란기였으므로 印制은 문란하여 官印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印章의 衰退期를 맞이하였고,⁽¹¹⁾ 印章은 타인의 손을 빌어서 姓名을 조각하기 때문에 僞造가 많았던 관계로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本人만이 가능하였던 花押制度가 상대적으로 盛行하게 되었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 온 것처럼 花押은 대체적으로 時代別 또는 使用한 身分에 따라서 고찰하여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一定不變한 것은 아니다. 즉 時代가 變遷되어도 前代에 사용하던 花押形을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身分에 따라서 文人體花押과 武人體花押이 구분되고 있으나, 文인이 武人體의 花押을 모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一人이 文人體와 武人體의 花押形을 並用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自身の 花押을 公用과 私用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奴婢나 賤民은 兩班과 中人들이 花押을 할 때 身分上의 제약을 받아 花押은 할 수가 없었고 반드시 左寸[手寸]만이 가능하였다는 것이 注目할 만한 일이다.

筆者는 우리나라 古文書中 私文書만을 500餘通 검토한 끝에 이중 自署가 있는 360餘通을 拔萃하여서 고찰한 결과 左寸이 20餘件이고 花押이 340餘件으로서 花押이 全體件數의 94%

(10) 上揭書 p. 55.

(11) 上揭書 p. 64.

를 접하고 있음을 알았다. 끝으로 兩班이나 中人들의 부인은 墨印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는 아주 적어서 겨우 3件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花押은 어떠한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分析한 結果, 草名體가 261件으로 全體의 77%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二合體가 35件으로 15%를 차지하고, 三合體가 딱 떨어져서 단지 4件, 一字體가 4件, 別用體는 약간 많아서 11件, 마지막으로 明朝體가 5件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草名體가 花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二合體가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別用體가 약간 웃돌 정도이고, 三合體·一字體 그리고 明朝體는 存在價値가 미미할 정도로 아주 적었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花押制度는 韓末을 起點으로 하여 印章으로 代替되면서 자취를 감추고 말지만, 印章은 그 短點이 偽造하기가 쉬운데 있음에 反하여, 花押은 偽造가 전혀 不可能하다는 점, 그리고 印章이 偽造로 인하여 正確性和 信憑性이 稀薄한데 비하여 花押은 完全無缺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선진 서구제국에서는 印章 대신 花押(sign)을 常用하고 있으며, 요즘 수십억대에 달하는 거액의 偽造文書事件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볼 때 이의 방지책으로도 自署인 花押制度가 타당하다는 것을 筆者는 거듭 주장하는 바이며, 韓末에 比하여 文化水準이 많이 向上되고 民度가 높아진 이마당에서 볼 때 花押이 復活되어야 한다고 믿는다.